현불 논단

도어스테핑과 언론 소통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화제'
적극적인 소통 의지 상징한 행보
美 · 英 등 도어스테핑 일상 관행
현안 홍보 · 악재 선제 대응 활용

도어스테핑 안정위한 방안 고민을
표현 정제 등 메시지 관리 힘써야
도어스테핑, 새 소통으로 자리하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이 화제가 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길에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다. 이렇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체로 언론은 대통령의 언론 소통 방식을 진일보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잠깐 서서하는 약식 기자회견' 으로 풀이할 수 있는 도어스테핑은 미국 · 영국 · 일본 · 캐나다 등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은 즉석 문답 형식의 회견이다. 도어스테핑은 '집 앞 계단' 을 뜻하는 영어 단어 'Doorstep' 에서 생겨난 언론 용어로서, 영국 BBC의 매뉴얼에 따르면 언론이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취재원의 거처, 중요한 장소 등에 진을 치고 취재하는 것을 말한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도쿄 지요다구 일본 총리 관저에는 출퇴근 시간에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이 대기해 있는 게 일상이다. 이런 관행이 청와대의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 총리는 출퇴근길은 물론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관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지난해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바현 지진 발생시 새벽 시간에 기자들을 부르는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밤에도 기자 앞에 나서고 있다. 국정 현안을 신속히 알리고, 위기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전용 헬기가 뜨고 내리는 백악관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근처에 대기하는 기자들과 즉석 토크를 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시끄러운 환경 상 세밀한 질문이 어렵고, 보통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끝나곤 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현장 대면을 통해 대통령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한국은 언론시스템과 언론 자유가 세계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례 회견의 횟수나 방식, 대변인이나 관계자의 충실한 브리핑은 미진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소통 방식이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관련 참모들의 의지, 언론의 역량,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소통 문제를 두고 정부과 언론 간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한 속성을 가진다.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적 공생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과 갈등은 숙명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나왔다는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침 도어스테핑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코로나19 재확산은 핑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메시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도어스테핑을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음으로써 도어스테핑은 하루 만에 재개되었는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가 지지하는 도어스테핑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정제되도록 메시지를 관리하고, 종합적인 이미지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메시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의 발언 빈도와 양을 줄이도록 참모와 장관들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뿐만 아니라 소통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와 태도가 더해져 형성된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산물인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임기 내내 지속돼 새로운 언론 소통 관행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적 생각이 성공 부른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지요.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려고 냉동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냉동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떠나고 말았어요.

냉동실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선원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쇠 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과 날짜별로 새겨나갔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기록했던 것이지요. 냉기(冷氣)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 동상을 입은 부위가 견디기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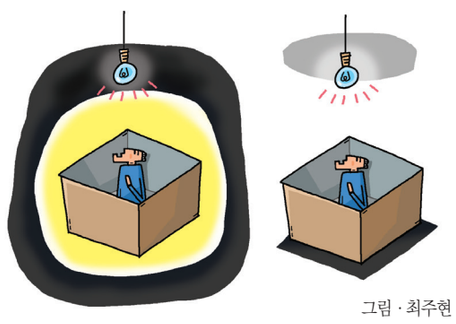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상처로 변해 가는 과정을 꼼꼼히 적었지요.

마침내 배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냉동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했어요. 선장은 벽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고통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지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인 것을 확인한 선장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지 않았기에 당연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은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춥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그 상상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의 발산이며 때론 신통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기도하여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자신에게 속삭여줍니다. 컨테이너 속의 선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에게 들려주었어요. 반면에 사명대사는 상황을 역전시킬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관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처럼 긍정의 사고방식과 부정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젠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세계불교학대회에 거는 기대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일원에서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가 열린다. 본래 2020년 열려야 하는 대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간 연기돼 오다가 마침내 개최되는 것이다.

세계불교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인 세계불교학대회는 1978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국 명문대학인 저장대와의 유치 경쟁 끝에 얻어진 결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

대회 기간에는 36개국에서 250여 명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25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 주제 역시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그 폭과 양이 방대하다. 최신 디지털 불교학의 성과를 선보이는 패널과 워크숍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발표를 통해 세계 불교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불교학의 연구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지만, 국제적 교류나 리더십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제 한국불교와 한국불교학계는 세계적인 역량을 키우는 활동과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불교학은 인문 · 복합적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문헌학에서 시작한 근대불교학은 현대로 오면서 철학, 역사, 예술 등을 망라하는 인문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불교학도 이 같이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가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불교 활성화 신호탄 되길

인천불교총연합회가 7월 19일 제32대 회장으로 태고종 인천교구 종무원장인 능해 스님을 선출했다. 인천은 개신교의 교세가 강하기로 정평 나 있는 지역이다. 개화기를 거치며 서구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기도 하려니와 도서지역이 겹친 지역 특성상 개신교회가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기도 했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찰은 수십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여러 종단으로 나뉘어 있다. 인천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종단간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 포교를 이끄는 것이다.

태고종 인천 종무원장인 능해 스님은 취임과 함께 인천불교 화합과 결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에는 올해 2월 대한불교청년회가 인천지구 재설립을 선언하는 등 인천불교 활성화에 대한 원력이 모아지고 있다. 대불청 인천지구는 지속적인 불자 감소와 지도스님의 부재로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포교에 어려움을 겪어 1997년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능해 스님은 최우선 과제로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과 지역 내 각 사암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을 꼽았다. 여기에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역 불자 배가 운동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인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등에서의 활발한 전법 포교가 기대된다.

한국불교는 지역불교의 침체를 심각한 눈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젊은 불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어지는 일이다. 그동안 개신교세가 강했던 인천지역에서 새롭게 불교세가 일어선다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번 제32대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선출을 계기로 지역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